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⑩

다음은 제25, 심회향품(心廻向品)이다. 금강당보살(金剛幢菩薩)이 지광(智光)삼매에 들어 가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었고, 그 삼매에서 일어나 열 가지 회향을 말한다.

각각 세 곳으로 회향하였으니, 첫째 대비심을 중생에게 베풀어 교화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중생에게 회향하고(衆生廻向), 둘째 위로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보리에 회향하고(菩提廻向), 셋째 회향하는 사람이나 이치가 모두 고요함으로는 진여의 실체에 회향하여서(實際廻向) 그지없는 수행의 바다로 '보현법계(普賢法界)의 공덕'을 성취하는 일을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불공시 축원문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회향삼처(廻向三處)의 정신이다.

불탑에 나무불 염송해도 성불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이 회향 정신

이 '회향'이란 말이든가! 사람들은 마음을 비웠다고 말하지만 과연 마음 비우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사찰에서는 공양 끝에, '이 공양 마치니 몸에 힘이 충만하여 위세로는 사방을 제압할 만 하네. 이런 수행 부처님께 돌려 마음 비우니 모든 중생이 공덕으로 신통을 얻음지이다'라고 하였다.

그 심회향품의 총론격인 제1 '중생'이라는 생각 없이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회향(廻向一切衆生)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먼저 많고 좋은 것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선군이 비록 적으나 중생들을 널리 포섭하여 환희한 마음으로 광대하게 회향하나니, 만일 선군이 있으면서도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회향이라 이름할 수 없지만, 한 선군이라도 널리 중생으로 변연할 바를 삼으면 회향이라 이름하느니라"라고 하였다.

"옛날에 모든 중생 건지시려고 한량없는 겁 동안 지옥에 있어, 조금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웅망한 마음으로 늘 회향하

며/사방의 한량없이 많은 국토에 부처님 계신 데는 모두 나아가, 거기서 대비 세존 만나 뵈고 모두 공경하고 우러러 섬기옵니다."

이어서 제2, 불귀회향(不歸廻向)의 계승을 보자. 갖가지로 보시하지만 만족을 모르고, 불탑과 사리에 공양하기를 실증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헤아릴 수 없이 한량없는 겁 가지가지 보시하되 만족 모르고, 백천만수 없는 겁 동안 선한 법 뒤는 일 또한 그러하네/저 많은 여래들이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여 싫은 줄 몰라, 가지각색 미묘한 장엄거리로 부사의한 모든 탑을 건립하오며."

두 번째 계승에 주목해보자. 대승경전에서는 의복 음식과 구 땅악으로 공양하는 '4중공양'을 비롯하여 한없는 친근·공경과 불탑과 사리에 공양하는 공덕행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

서 <법화경> 방편품에도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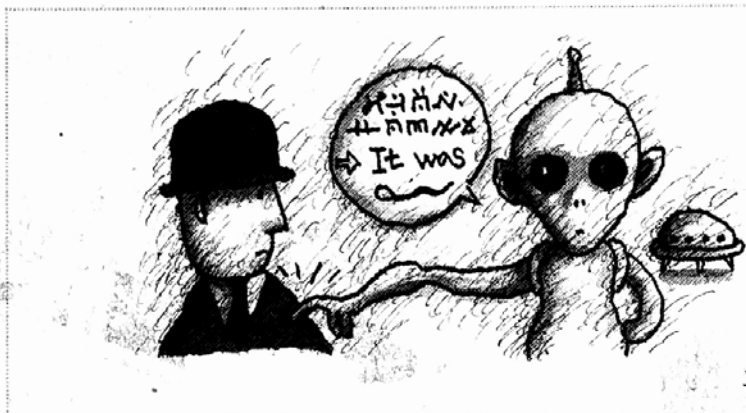
"어떤 사람 불탑(佛塔)이나 불상(佛像)이나 화상에 꽃과 향(香)과 반가(供養)로서 공경·공양하거나/어떤 사람 산란(散亂)한 마음으로 탐모(塔廟) 중에 들어가서 나무불(南無佛) 한 번 해도 모두 다 성불하게 되리라."

해인사의 대불조성과 관련하여 말이 많다. 어려운 시절에 많은 재물을 부처님께만 쓴다면 진정한 불교의 회향정신이라고 할 수 없으리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부처님 모시는 일도 여법하고, 모든 불자가 환희심으로 수회동참할 수 있는 불사가 되어야 하리라. 회향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살고 가면 그 뿐이라는 마음은 생존에 부적절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서 인간도 자연도 모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게 할 것이다.

회향의 정신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란 나와 똑같이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일 것이다.

■ 불교신문사 능엄학림 연구원



그림·문병성

시간따라 성주괴공하는 물질

불교와 과학 <35>

'물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고대 그리스 이후 근대 서양철학과 과학에서도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물질을 바로 그 물질에게 적합한 기체(基體)로서 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물질이 겉으로 드러내는 외형적 성질인 속성(屬性)으로 답하는 방식이다. 기체는 감각적으로 잡혀지는 대상이 아닌 반면, 속성은 감각적인 무엇이다. 감각의 대상이 아닌 기체를 언급하는 일은 추상적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상적인 것은 우리 자연 안에 없다. 원래 자연은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대상뿐이기 때문이다. 경험적인 자연을 다루는 학문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피직(physis)이라고 했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저 하늘 세계에만 존재할 것 같은 대상을 다루는 학문을 피직 그 다음 너머에 있다고 해서 메타피직(meta-physis)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번역한다.

19세기 말까지도 자연철학이라는 용어가 오늘의 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자연철학과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질을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에 있었다. 앞에서 기체의 설명 방식과 속성의 설명 방식을 다는 이유, 바로 형이상학은 추상적인 물질을 다루는 반면 자연철학 즉 과학은 감각적인 물질을 다루는 것이 그 주요한 차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철학과 과학의 경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구의 과학이 문제삼는 물질의 탐구는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 즉 물질의 성질이 인간의 인식 범주 안에 모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서구인이 생각한 인식의 범주란 대개 대상이 계량화될 수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그래서 계량화될 수 없는 지식은 진정한 인식이 아니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적 대상이 있다고 하자. 그 물질은 일정한 면적과 부피, 무게를 갖고 있으며, 색깔과 소리, 냄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맛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면적과 부피와 무게는 수(數)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색깔과 냄새 그리고 맛 등은 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성질은 주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과 주로 표현할 수 없는 성질로 구분된다고 본

시간과 물질

과학 시간 상관없이 계량화 되면 물질 불교 변화에 초점...물질도 궁극엔 호

것이 근대 서구인의 생각이었다. 근대과학의 문을 열게 한 갈릴레오와 그 완성을 이룬 뉴턴, 그리고 경험주의 철학자인 록크는 한결같이 그런 구분을 중시해 전자를 '제일차 성질' 그리고 후자를 '제이차 성질'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제일차 성질과 제이차 성질을 나눈 기준은 오로지 물질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표현가능인가 혹은 불가능한가라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일차 성질만이 물질의 근원적인 속성이 될 수 있으며, 이차 성질은 부차적인 속성이라고 보았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 이차 성질이었던 색깔과 소리는 옴스트림(A)이라는 단위를 통해 수학적 표현이 가능해졌고, 냄새나 맛까지도 수학적 표현이 가능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근대인이 생각했던 일차 성질과 이차 성질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수학적인 계량화 여부가 물질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서구과학과 철학의 기본틀이었으며 아직도 그런 기준은 유효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물질을 보는 관점은 계량화의 조건만이 모두는 아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못하며 항상 변화 속에 있다는 점에서 서구인의 계량화라는 조건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불교에서는 물질의 무상성(無常性)을 깨닫는 일이 그 시작과 끝이라고 보기도 했다. 서구의 물질관에서 볼 때, 물질은 시간과 독립된 기체와 속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래서 서구 특히 과학의 물질관은 시간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물질을 수학화하는 서구과학의 초점은 변화하는 물질의 변이 과정을 이성을 통하여 역으로 정지상태로 바꾸어 놓는 추상화에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변화하는 운동과정을 사진처럼 정지시킨 것으로 찍어 놓고선 그것이 바로 물질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불교 특히 구시론은 물질을 시간과 분리시켜 볼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시간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데서 물질의 성주괴공(成住壞空)이 있으며, 이런 물질의 변화를 인식하는 일은 한 컷의 사진을 보는 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물질의 동영상을 한 순간에 깨닫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식물도감에 나오는 함미꽃의 그림이 함미꽃의 모든 변화를 안고 있는 생태학적 생생함을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불교의 무위법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간과 얽매어져 있는 물질의 유위법을 아는 일, 그것은 무위의 진리를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소박한 입문이기도 하다.

■ 최종덕/상지대 교수 jchoi@chak.sangji.ac.kr

"반정부 종교활동 막자" 양국 공조체제 구축

지구촌 불교 / 中·베트남 종교탄압

초록동색(綠同色)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뽀얀피나 흰편이 비슷할 것끼리 모여 서로의 사정을 보아 준다라는 뜻으로, 지난달 26일 중국과 베트남 정부 인사들의 만남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 종교위원회의 양통상 대표와 베트남 응웬탄중 부총리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종교를 방자하여 정부와 당을 위협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자국의 종교 문제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종교 탄압 국가'라는 세계 인권 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상호 공조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고 비난 여론도 반감시켜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비공인 불교단체인 베트남불교연합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지난 4일 홍콩 주재 중국 외교 사무실 앞에서 30여 명의 파룬궁 수호자들이 명상에 잠긴 채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中 파룬궁·티베트 불교 신봉자 구금 베트남 불교지도자 사상범 지목 감옥 수용

불교연합의 지도자들을 가택에 연금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2월 반정부 소모임 일으킨 자라이성 등 중부 산악 지방의 기독교도들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시종일관 사상범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 감시단(Human Right Watch)이 지난해 9월 조사한 결과, 호치민 감옥에는 100여 명의 사상범이 수감돼 있으며, 대부분 스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의 현행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 탄압은 베트남 종전 전후(70년대)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파룬궁 관련자들을 탄압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사상과 다른 신념을 가진 인민들이 물의를 빚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이 사회주의 근대화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 내 서방 외교관들의 시각은 다르다.

이에 대해 중국 내 서방 외교관들은 "파룬궁 문제를 비롯해 최근 중국 정부와 여러 종교 단체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은, 종교집단이 당의 권력독점에 대한 최대의 위협 세력으로 떠올랐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이징의 젊은이들은 필독서였던 마오쩌둥 어록집 대신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자서전이나 민간 신앙서 등을 읽고 있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짓는 가정이 늘고 지방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난립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bo300@buddhap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쑥선식(2개월 50만원), 순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포(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2개월 50만원), 유허원장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정약(정약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술선식(松仙食)」, 「순효소정액(松醇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형정님 올림

창개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